

【 국내금융 뉴스 】

금융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

- 최근 대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부실이 유동화 및 신용파생거래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대내적으로는 KIKO 거래 기업이나 파생·역외펀드 투자자들이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으로 큰 피해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 TF 협의, IMF 기술지원 등을 거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파생거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 감독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추진 과제를 도출함.
 - 취합정보를 세분화, DB구축, 민간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정보 해석 및 활용을 강화하고, 상품별 위험고지 등 취약계층 및 일반기업 보호를 강화함.
 - 아울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파생거래 관련 운영·신용리스크 경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감독당국의 파생감독 기구 강화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을 재정립함.
- 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조속한 시일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되,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12/22)